

Library of the users, by the users, for the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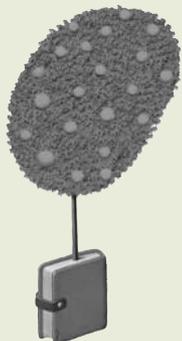
도서관의 발전은 도서관 사서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용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한데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이며,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이 은 초 _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성균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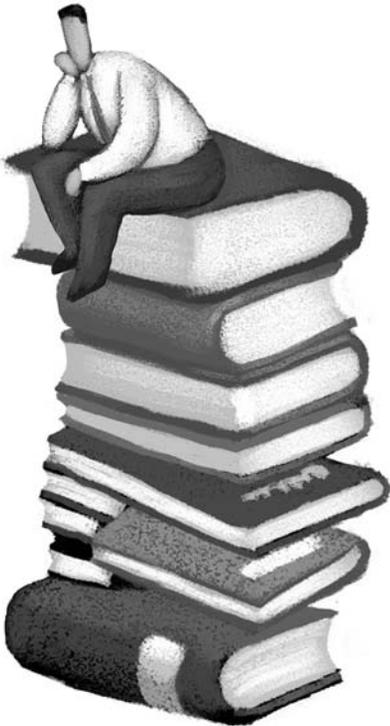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로 유명하다. 그의 연설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라는 구절은 민주주의의 참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을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국민의 것이며, 국민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적 기관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링컨의 짧은 연설 문구를 통해 도서관의 존재 의의와 운영의 근거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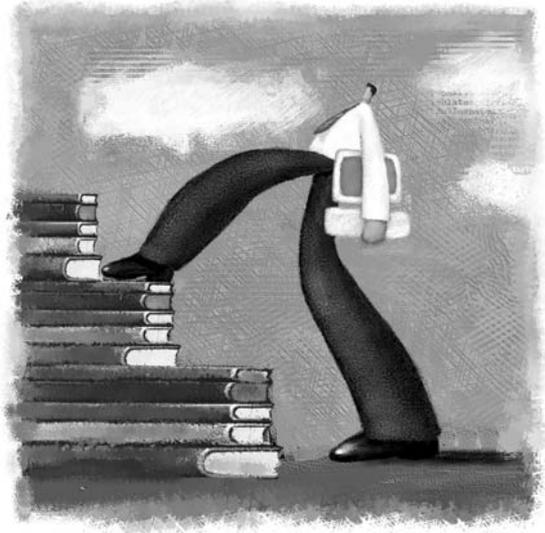
첫째, '도서관은 이용자의 것이다' (library of the users)

도서관은 이용자가 없었다면 설립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미 설립되었더라도 곧 소멸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용자의 것이며, 이용자는 도서관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도서관이 이용자의 것이 아닌, 정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이나 사서들의 것인 양 운영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주인은 뒷전으로 돌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그들을 푸대접하지는 않았는지? 이용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대접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더 요구되지 않는지 말이다.



둘째, '도서관은 이용자에 의한 것이다' (library by the users)

도서관은 사서가 운영의 주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이용자도 운영주체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때 더욱더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것'인 도서관의 운영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한인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제반 운영에 이용자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용자는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고 반영시키려는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요구, 관심 및 지원은 사서들을 자극시켜 도서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셋째,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다'(library for the users)

우리는 앞에서 도서관은 '이용자의 것'이며, '이용자가 주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이용자 위주로, 이용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연 도서관의 제반 제도, 규정, 업무, 시설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이 전적으로 이용자 위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사서들이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발전은 도서관 사서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용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한데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이며,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도서관계에는 도서관 내부(사서)의 자각과 정부의 법률,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서관 존재의 전제가 되는 이용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현실 상황에서 도서관의 존재 의의와 운영의 기본이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